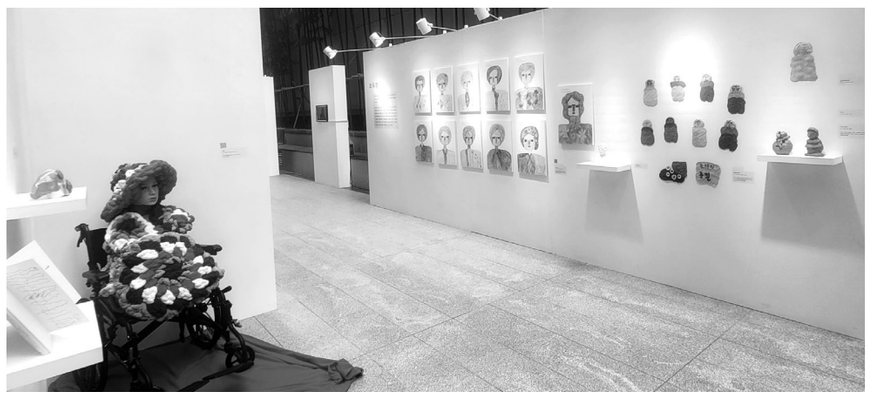
광주교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결과전시회



광주교대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창작자 과정 전시 'N개의 발화-비대칭 감각에 대하여'가 오는 2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열린다. 〈사진〉

이번 기획전은 장애 예술가들이 전문 창작자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광주교육대학이 6개월간 함께 진행한 광주교대 이음예술창작아카데미(지도교수 최성희) 결과전시다.

전시에는 김경·김동우·박가연·박은영·박정선·백은영·송종빈·신익희·오연화·윤보민·이혜선·임지아·조유경·주현민 작가가 참여해 회화,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다.

오는 20일 오후 1시 문화정보원 강의실2에서는 '장애 예술 교육의 방향과 과제: 장애 예술 or 장애인 예술 or 예술?'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도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주 봉황면지역발전협의회, 학교발전기금 300만원

나주시 봉황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양채식)는 지난 12일 봉황초·중학교에 지역 인재 육성 및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300만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사진〉

봉황면지역발전협의회의 이번 기탁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 초중등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관내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타 지역 학생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기탁한 학교발전기금은 학생 장학금으로 조성돼 봉황초·중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에게 장전달됐다.

양채식 회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역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이번 장학금 기탁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배움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학교에는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 문덕주·혼나티 부부 취약계층에 100만원 기부

화순군 도곡면(면장 김수진)에 사는 문덕주, 혼나티 부부가 지난 14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만원을 도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 〈사진〉

문덕주·혼나티 부부는 모두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화순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예술·기업 동반성장' 우수재단 선정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이 지난 15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재단으로 선정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진〉

재단은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예술단체와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후원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은영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후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예술단체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전남형 후원 모델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조선대 학군단 출신 4명, 소장·준장 동시 진급

박민영 소장 서필석 준장 김희찬 준장 황주봉 준장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지난 9일 단행된 정부의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조선대학교118학군단(ROTC) 출신 4명이 소장·준장으로 진급하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재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소장·준장급 진급과 주요 보직 인사를 통해 군 전투력 강화와 미래 전장 대비를 목표로 추진됐다.

이 가운데 조선대학교 118학군단 출신인 ▲박민영 소장(89학번, 독일학과·준장에서 소장)과 ▲서필석 준장(91학번, 전기과·이하 대령에서 준장) ▲김희찬 준장(94학번, 우주항공학과) ▲황주봉 준장(94학번, 사회체육학과)이 진급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전투부대 지휘 및 핵심 참모 보직을 맡게 될 예정으로, 조선대가 길러낸 인재들이 군 조직의 중추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하남전자, 나눔 기업 릴레이 동참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에 위치한 ㈜하남전자가 광주사랑의 열매가 진행 중인 '희망206나눔캠페인 나눔 히어로·나눔 기업 릴레이 기부 챌린지' 7주차 릴레이 주자로 참여했다. 〈사진〉

㈜하남전자는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으로 318만원을 기탁했으며 지난 14일 오전 나눔기업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TV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TV 유치원 30 굿모닝 대한민국(재)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50 생생정보 스페셜	50 첫 번째 남자(재)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친밀한 리플리(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영상앨범 산(재) 3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3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1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0 은애하는 도적님아(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쌍둥이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재)	25 뽀뽀뽀 좋아좋아 55 2시 뉴스 외전	00 네모세모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25 함께, 우리(재) 3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월드 24 45 캡슐세이버(재)	55 기분 좋은 날(재)	00 탑클래스
4	00 사사건건	00 TV 유치원(재) 30 세상의 모든 다큐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시크릿 코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이맘때	20 스튜디오 K 스페셜	10 베베핀 30 첫 번째 남자(재)	00 SBS 오뉴스 30 꾸러기 탐구생활(재)
6	00 6시 내고향	00 경제콘서트 35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00 생방송 투데이 50 닥터 365 55 시장이 좋다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친밀한 리플리	05 첫 번째 남자 40 MBC 뉴스데스크	35 시사터치! 따따부따 50 SBS 8 뉴스
8	30 마리와 별난 아빠들	30 개는 훌륭하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0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00 말자쇼	5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인생이 영화(재)	00 아이 러브 스포츠 25 스모킹 건(재)		50 닥터 365
12	15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재)	2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40 MBC 뉴스 25	00 열린예술무대 뒤란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06:10 세계테마기행 〈덕후의 전쟁사전 영원한 로마 한니발이 문 앞에 와 있다〉
07:00 슈퍼윙스 슈퍼콤보
07:15 모두 함께 부스누!
07:30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07:45 다이노스터 공룡수호대
08:00 딩동댕 딩동댕
08:20 한글용사 아이야
08:50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09:20 자이언트 펭TV
09:40 PD로그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극한직업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4:30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10 고향민국
15:40 마샤와 곰
15:55 블록스
16:10 딩동댕 딩동댕(재)
16:30 한글용사 아이야(재)
17:00 페파 피그
17:10 메카 빌더
17:40 타타와 쿠마 오늘도 대모험
17:50 자이언트 펭TV(재)
18:10 EBS 뉴스
18:30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
19:20 고향민국
19:50 손주 보러 세계일주 - 할매가 간다!
20:40 세계테마기행 〈프로방스 아트 로드 샤갈의 도시, 니스·생폴드방〉
21:35 한국기행 〈달콤한 겨울 1부 조청 달이는 달콤한 인생〉
21:55 EBS 다큐프라임
22:50 취미는 과학 여행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9일(음 12월 1일 癸巳)

☎ 010-9790-8237

子 48년생 돌발 상황이 예상되니 대비해야 한다. 60년생 생활 속에서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응해 나가도록 하라. 72년생 외형까지 신경 쓴다면 부가적 효과가 따른다. 84년생 전방위적인 안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96년생 서로가 화합하니 기쁨이 넘치는구나! 08년생 옛것으로부터 기회가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4, 91

丑 37년생 난해하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자. 49년생 성부에 집착하지 말고 실행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자. 61년생 승산이 있으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이익이다. 73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낫다. 85년생 본의 아니게 타의 영향으로 인해 변경 될 것이다. 97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28, 81

寅 38년생 균열을 메운다면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다. 50년생 확신하고 있다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 62년생 여러 가지가 보이겠지만 일부만 유익할 뿐이다. 74년생 응용의 묘리를 살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86년생 초기 계획과는 약간 다르게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98년생 확실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00, 54

卯 39년생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묻어간다. 51년생 물이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옳다. 63년생 정상적인 상태의 진행이라야만 무난하겠다. 75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87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99년생 무탈할 것이니 노파심을 버려도 된다. 행운의 숫자 : 25, 57

辰 40년생 아침의 근심이 저녁이 되면서 진정 국면을 맞는다. 52년생 뜻밖의 괴로움이 발생할 소지가 농후하다. 64년생 뜻이 확실하다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76년생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노력에 정비례하는 결과가 있다. 88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00년생 핵심 가치에 중점을 둬라. 행운의 숫자 : 36, 87

巳 41년생 변동수가 보이니 이를 감안 해야겠다. 53년생 과감한 결단을 한다면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65년생 급히 반전되는 국세이니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77년생 상대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도다. 89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십상이다. 01년생 다 끝난 일이니 속히 미련을 버리자. 행운의 숫자 : 26, 93

午 42년생 불필요한 걱정은 심신을 쇠잔케 할 뿐이다. 54년생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면모를 띠고 있다. 66년생 참신한 발상은 성공을 이끌기에 충분하다. 78년생 행하다 보면 다른 일에 소홀할 수도 있다. 90년생 과정은 매우 힘들게 진행되겠지만 결과는 알찰 것이다. 02년생 방심하다가는 결정적인 흠결을 남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6, 71

未 43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행운이 따르리라. 55년생 일단 수용하고 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이다. 67년생 초기 상황에서 손을 써야만 한다. 79년생 행위자의 정확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91년생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따로 있느니라. 03년생 강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야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07, 51

申 44년생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느니라. 56년생 사실은 별것 아니니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68년생 머뭇거리다가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80년생 인연은 새로우나 기대할 바는 못 된다. 92년생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이가 따로 있다. 04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52

酉 45년생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의 두각이 나타나게 된다. 57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69년생 재물이 늘어 날 수도 있는 운세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 81년생 노력한다면 자신이 염원해 왔던 바를 얻게 된다. 93년생 지금 확실히 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 05년생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행운의 숫자 : 02, 73

戌 46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라. 58년생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만 하느니라. 70년생 평시에 가졌던 의문이 풀리리라. 82년생 파격적인 조처를 해야 할 현태이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겠다. 94년생 순간의 오판을 주의하라. 06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1, 72

亥 47년생 자제해야만 원만하게 보존할 수 있느니라. 59년생 전혀 이해 할 수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71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 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83년생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95년생 종류와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07년생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6, 74